

한국 민속학의 학제간적 복합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학 30년

김일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화예술학부 부교수, 민속학 전공
kig110@aks.ac.kr

- I. 머리말: 장철수 교수 10주기와 한중연 민속학 30년
- II. 민속학의 다학회적 특성과 학적 정체성
- III. 민의 재해석과 민속문화 연구의 확장성
- IV. 민속학의 학제간적 복합성과 다섯 분과학 방법론
- V. 맺음말: 전통문화 연구와 고전민속학적 전망

I. 머리말: 장철수 교수 10주기와 한중연 민속학 30년

2010년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학 전공 교수로 재직하다 향년 54세로 작고한 장철수 교수(1946~2000)의 10주기가 되는 해이다. 1990년 출범한 한국역사민속학회의 창립 발기인이었고, 3대 회장(1994~1996)을 역임한 장철수 교수¹⁾를 기리는 추모사 여섯 편이 『역사민속학』 12호(2001)에 실렸었다.

작고한 이듬해 바쳐진 〈유고문(告由文)〉은 “유세차 이천일년 오월 십이일 토요일(維歲次二千一年五月十二日土曜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이계학 · 허창무 · 이광호 · 김경일 · 양동안 · 전택수 · 박동준 · 정영훈 · 강돈구 등, 감소고우 덕사덕수장공철수교수 분묘영전(敢昭告于惠士德水張公哲秀教授墳墓靈前)”으로 시작하여, “지역문화 발전 두고 의기투합 가세하여 성남문화 기틀 잡고 남사모를 발족시켜 남한산성 행궁터를 복원하게 되었으니 이 모두를 그대 없이 그 누구가 이룩할 수 있단 말가”²⁾라는 애달픈 추모의 마음을 모았다.

떠나는 날 슬퍼하는 동료와 제자들의 마음을 담은 이광호 교수의 애도사는 다음처럼 남아 있다. “이제 2000년도 저물어가는 2000년 11월 18일, 낙엽이 여기저기 쓸쓸히 나뒹구는 연구원 대강당 앞, 우리는 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저 세상으로 홀홀단신 떠나려는 장철수 선생님을 보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 늘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1) 1946년 2. 24. 아버지 장수산, 어머니 김수옥 여사 사이에 독자로 출생.
1964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입학. 이두현 교수의 민속학 강의에 감명받아 진로 변경.

1968년 졸업하면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고고인류학과에 편입하여 3년 6개월간 수학.

1971년 졸업. 2대 독자로 1년 군복무. 온양민속박물관 설립 시 학예과장 역임.

1979년 1월 안동대학교 민속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13년간 봉직.

1981년 독일 튀빙겐 대학교에 유학하여 4년간 민속학 박사과정 수료.

1991년 5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민속연구실 교수로 부임.

1993년 1월부터 2년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학실장 역임.

2000년 11월 16일 향년 54세로 별세.

* 유고 저서: 『한국의 관혼상제』(집문당, 1995), 『옛무덤의 사회사』(웅진출판, 1995), 『한국민속학의 체계적 접근』(민속원, 2000), 『새 지평을 여는 민속학 연구』(민속원, 2011), 『물구나무 민속론』(민속원, 2011)등이 있다.

이상 정구복, 「장철수 교수 약전」, 『한국학중앙연구원 30년사』(2009. 2), 제5부 인물 약전(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30년사 제공) 참조.

2) 『告由文』, 『역사민속학』 12호(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29~30쪽.

것을 주고 싶어 했던 한국학대학원의 민속학 전공 제자들,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제자들, 학문을 논하고 웃고 떠들며 술잔을 나누던 동료 교수들 그리고 직원들, 우리 모두는 이제 정말 장철수 선생님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2000년 11월 18일, 이광호 옆드려 곡합니다)³⁾

1979년 12월 안동대학교 민속학과가 개설되어 전임강사로 부임하던 모습을 제자들은 다음처럼 추념하고 있다. “지금부터 21년 전 꽂다운 계절 어느 날, 그때 선생님께서 처음 우리들 곁으로 성큼 다가오셨습니다. [...] 안동의 명륜동 캠퍼스와 송천동 캠퍼스에서 쌓고 기른 정감과 추억을 이렇게 한순간에 버리실 수 있습니까? [...] 초창기 민속학과가 제 걸음마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미운 투정 고운 투정 다 받아가면서 엮어오신 선생님 특유의 사랑과 집념이, 오늘 이 자리에 제자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2000년 11월 18일, 안동대학교 동문을 대표하여 배영동 삼가 명복을 빕니다)⁴⁾

1991년 5월 본원 사회민속실 교수로 부임한 이래 10년간 학문의 전당을 위해 노력한 모습을 두고, “당신은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한국민속학의 체계적 접근』이라고 하는 한국 민속학의 지침서를 후학들에게 남기셨습니다”(이형구, 2000. 11)⁵⁾라고 하였고, 모두를 두고 떠나는 노제에서, “형은 한국의 민속학을 체계화하려는 큰 뜻을 가지셨습니다. 한국의 현대 민속을 역사적 문현을 중심으로 체계화하려 하였고, 그렇기에 만권이 넘는 장서를 연구실에 수용할 수가 없어 성남에 서고를 따로 마련하였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많은 장서를 이용하시지도 못하고 떠나시다니요. [...] 저는 대학교 동문으로서, [...] 향촌민속지의 공동연구자로서 [...] 형은 학계의 동량으로 활동을 하셨고 연구원에서 형에게 거는 학문적 기대 또한 대단히 컸습니다. [...] 한국의 민속학이 이제 제자리를 잡으려는 시기에 형의 떠남은 연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학계의 큰 손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2000. 11. 18. 노제에서 정구복 올림)⁶⁾라고 하여 한국민속학의 체계화에 일생을 바친 모습을 회고하고 있다.

3) 이광호, 「조사: 장철수 선생님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납니다」, 『역사민속학』 12호, 36-38쪽.

4) 배영동, 「弔詞」, 『역사민속학』 12호(2001), 39-40쪽.

5) 이형구, 「畏友 張哲秀 교수」, 『역사민속학』 12호(2001), 32-33쪽.

6) 정구복, 「祭文」, 『역사민속학』 12호(2001), 34-35쪽.

그의 마지막 유작인 『한국민속학의 체계적 접근』(2000)의 서문 첫 문장이 “민속학을 전공한다고 해맨 지 벌써 30여 년”으로 시작하고 있듯이, 그는 “독립학문으로서의 민속학”을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한 학자로 기억되고 있다. “그의 학문적 천착 속에는 국문학적 민속학, 인류학, 독일의 민속학방법론 그리고 역사민속학을 포괄하는 제반 과정이 녹아져 있다. 문화인류학계에 일찍부터 관계했으면서도 학문적 입장은 일관되게 민속학연구자로 불리길 희망하였으며, 이는 민속학이 독립학문으로 나아 갈 때만이 장래가 보장됨을 일찍이 깨닫고 있었던 탓으로 보인다”(2001. 6)고 평가되고 있다.⁷⁾

그러나 아직 굳건한 학문적 체계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학문적 독립성을 여전히 경주하여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난 2010년, 그가 추구하였던 독립학문으로서의 민속학이 외풍(外風)과 내열(內裂)을 동시에 맞아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内外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넘어서기 위해 〈한중연 민속학 30년: 민속학의 전통문화 연구〉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우리 민속학전공 주최로 마련하였다. 이에 장철수 교수의 유지를 잊고, 독립학문으로서의 민속학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시도한 이 글은 근대학문으로서 일제시기 아래 이 땅에 숨쉬어온 한국민속학의 학문적 역할과 민속 개념의 범주적 성찰을 통해 민속학적 방법론의 확장을 위한 시론적 의견을 담았다.⁸⁾

II. 민속학의 다학회적 특성과 학적 정체성

우리 민속학이 일제시기 근대학문으로 태동한 이래, 해방 공간을 거치면서 한국의 자문화 연구에 몰입한 지 어느덧 65년이 흘렀고,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출범 초기 한국학대학원(1980. 3. 개원) 학과편제에서 7개 학과 14개 전공

7) 주강현, 「독립학문으로서의 민속학을 걸었던 와길의 민속학자」, 『역사민속학』 12호 (2001), 24~28쪽.

8) 이 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학전공 주최(문화와종교연구소 주관)로 2010년 6월 4일 열린 국내학술대회 〈한중연 민속학 30년: 민속학의 전통문화 연구〉에서 발표한 글을 보완한 것이다. 김일권·송화섭·심승구·김시덕·나경수가 발표하였고, 도성 달·박경하·김기덕·임민혁·정치영이 토론하였으며, 심재우·신종원이 사회를, 임 재해가 종합토론을 주관하였다.

중의 하나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지 근 30년이 지났다.⁹⁾ 또한 올해는 일제의 무법 침탈로 국권을 상실한 지 꼭 100년이어서 이를 계기로 삼아 사회 다각에서 자기 성찰과 새로운 비전 창출에 분주한 때이다. 근대화의 미명 아래 문화 말살을 기획하였던 일본 제국주의의 치하를 겪으면서도 우리 민족의 문화와 자존을 지키기 위해 다른 국학들과 마찬가지로 민속학 또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해방 이후 부단히 변모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수립하려는 학술 모멘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전통의 지속과 변동 속에 면면히 전승되어온 우리 한국민속문화의 뿌리를 확인하면서, 끝없이 움직이는 현재적 우리 삶의 양태를 학술적으로 규명하려는 한국의 민속학은 해방 이후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양 진영 학자들에 의한 지대한 관심과 참여 속에 다양한 학적 기반을 확충해 왔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또한 역설적으로 민속학이 자기 학문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위협받는 대응과 자기 연민의 기간이기도 하였다. 현재로서 전국 대학 학과 편제에서 열세에 처한 소수자 현실로 말미암아 그 학문적 역할과 기능이 매우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거대 학문인 국문학과 역사학, 사회학과 인류학의 방법론적 우위 아래 그 속에서 겨우살이를 하는 의존 학문의 성격을 강요받아왔다. 현재 우리 한중연에서는 지금 다시 이러한 학문적 우월론이 숨 쉬는 순간에서 우리 민속학 전공의 이름을 지켜야 하는 힘든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¹⁰⁾

이에 민속학의 학사적 관점에서 해방 후 변천사를 돌이켜본다.

(1) 무엇보다 1950~1960년대는 우리 민속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도적인 공적 장치로 토대를 이루던 시기였다.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민속학의 관심이 높아져 한국민속학회(최상수, 1955)의 창립을 필두로, 국어국문학회 민속분과 설치(1957), 한국가면극연구회

9) 1978년 6월 30일 개원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설 한국학대학원은 1980년 3월 개설되었고, 1982년 1월 철학종교학과(철학·종교학), 어문학과(국어학·국문학·한문학), 역사학과(역사학), 예술학과(음악학·미술학), 사회민속학과(사회학·민속학), 정치경제학과(정치학·경제학), 국민윤리교육학과(국민윤리학·교육학)의 7개 학과 14개 전공으로 편제가 확대 개편되었다.

10) 민족의 역사와 전통문화 연구를 추구하는 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부응하여 개설된 민속학전공은 개원 이래 30년을 장구하게 지켜온 정통학과이다. 본원 인류학전공이 여기서 갈려나간 것은 2000년부터였으며,(1999년 11, 11 및 12, 10 학제 개편) 이때 민속학은 전통문화학부로, 인류학은 비교문화학부로 편제되었다.

(이두현, 1957), 한국문화인류학회(임석재, 1958) 등이 출범하여 한국민속 연구의 토대 환경을 만들었다.

(2) 1960년대에 들면서 정부의 문화정책 차원에서 사회의 민속적 관심을 제도화하는 흐름이 정초되었는데, 문공부(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관리국 설치(1961),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연례 개최(1961), 문화재보호법의 제정(1962), 문화재위원회 설치(1964), 문화재관리국 산하 한국민속관 개관(1966), 문화재관리국의 전국민속종합조사 실시(196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신설 및 민속계 설치(1969) 등 관보적 제도화가 전개되었다. 민속학 관련 연구기관으로 서울대 문리과대학 고고인류학과 설치(196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설립(1963), 제주민속박물관 개관(1964), 에밀레박물관(1968), 민속학회(임동권, 1970)의 설립이 이어졌다.

(3) 다음 1970~1980년대는 경제개발에 따른 자산감의 충전과 그 반동으로 인한 자기 비판의 심화 속에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빌굴하고 재확인하려는 문화복구주의 흐름이 사회적으로 팽배하던 시기였고, 그에 따라 각종 민속 관련 연구소와 학과 설치가 잇달아,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민속학의 사회적 안착을 지향하고 민속문화의 대중성을 확대하던 시기였다.¹¹⁾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립한 우리 한중연의 민속학전공은 당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한민족문화백과사전』(1980~1991)의 편찬과 『한국구비문화대계』(82권, 1980~1988)의 집성과 같은 한국학 토대 연구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며, 지금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2003~현재)이라는 해방 이후 최대의 향촌 디지털 민속지 구축사업에 역할을 부여받고

11) 민속학 연구사의 시기구분은 학자들마다 다른데, 김태곤(1973)은 여명기(1920~1945), 중홍기(1945~1960), 발전 및 혼동기(1960~1970), 정리기(1970~현재)로 보았으며, 인권환(1978)은 남상기(조선 말 실학시대), 형성기(1920년대), 정립기(1930년대), 침체기(1940년대), 발전기 1(1950년대), 발전기 2(1960년대), 전환기(1970년대)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두현(1983)은 남상기(17~18세기), 형성기(1920년대), 정립기(1930년대), 침체기(1940년대), 발전기 1(1950~1960년대), 발전기 2(1970~현재)로, 인권환(1994)은 다시 남상기(조선후기 실학시대), 형성 및 정립기(1920~1930년대), 침체 및 모색기(1940~1950년대), 발전기(1960~1970년대), 전환기(1980~현재)로, 김용덕(1994)은 태동기(고대~조선후기), 맹아기(실학), 성장기(구한말~1930년대), 시련기(1940~1960년대), 발전기(1970년대 이후)로 분기하였다. 이를 보면 1970~1980년대의 인식이 대체로 전환기 내지 발전기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구분 정리는 장철수, 「한국민속학 50년」, 『한국학보』 82집(일지사, 1996); 장철수, 「광복 후 50년 연구사」(2000), 『한국민속학의 체계적 접근』(2000, 10)으로 제수록, 162쪽에 실린 도표를 읽긴 것이다.

있다. 이러한 대형 문화사업의 배경에 민속학이 기여한 학문적 안목과 역할은 지나치게 강조하여도 결코 넘치지 않는다.

1970년대에는 무엇보다 한국민속 연구의 메카인 국립민속박물관(1975)이 문화재관리국 산하로 개관했으며, 한국민속촌 전립(1974)에 이어 온양민속박물관(1978)이 개관하는 등 대중들과의 민속문화 소통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연구소로 원광대학교 민속학연구소(김태곤, 1971), 한국민속극연구소(심우성, 1971), 관동대학교 동북아민속학연구소(최인학), 명지대학교 동북아시아민속학연구소(1976), 동아대학교 한국민속문화연구소(1978),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1979)가 차례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동력을 바탕으로 대학의 공적 제도로 안동대학교에 민속학과(1979)가 설립되었고, 대학원대학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79)이 개원하면서 민속학연구실 및 한국학대학원 민속학전공 과정(1982)이 설치되는 성과를 이룩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정신문화연구원의 민속학전공은 대학원 학제로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배출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전문 민속학자의 양성 산실을 기약한 것이었다.

(4) 1970년대의 모드는 1980년대 들어서도 연속되었는데, 대한민국학술원에서 민속학전공회원의 선출(1982)이 신설되었고, 아세아민속학회(김태곤, 1980), 비교민속학회(최인학, 1983) 등 외적 확장을 꾀하는 학회가 창립되었다. 연구소로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1988), 중앙대학교 한국민속학연구소(1989)가 설립되었으며, 박물관으로 영일민속박물관(1983),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1984), 광주시립민속박물관(1987), 롯데 월드민속박물관(1989)이 잇달아 개관하였다.¹²⁾

(5) 그러한 반면, 세계적 냉전의 시대가 막을 내린 1990년대를 거치면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을 화두로 삼아 우리 사회의 제반 권위와 전통을 크게 부정하던 해체적 지성 요구에 대응하여, 민속학의 민중 지향성과 현장 실천성이 대두되고, 민속의 지속과 변동을 탐구하는 역사적 접근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취지의 학회 설립이 활발하여 한국역사민속학회(박

12) 민속학을 포괄하는 인류학과의 개설도 주목되는데, 영남대학교에 문화인류학과(1972)가 설치되었고, 서울대학교에 인류학과가 문리대 고고인류학과(1961)에서 사회과학대학으로 분리 설치(1975)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1983),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1983), 강원대학교 인류학과(1988), 전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1988), 목포대학교 고고인류학과(1988)가 설치되는 등 매우 활발한 성과를 보였다. 장철수, 「광복 후 50년 연구사」(2000), 171-173쪽.

현수, 1990), 한국민속학회(김태곤, 1994), 한국야마니즘학회(조홍윤, 1997), 실천민속학회(임재해, 1997) 등이 새로이 창립되고, 한국민속학회(2000)¹³⁾도 통합된 조직으로 거듭났다. 또한 중앙대학교에는 민속학과(1998)가 설치되는 등 민속학의 내적 심화와 외연적 확장이 이루어졌다. 연구소로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1991)가 설립되고, 박물관으로 옹기 민속박물관(1991), 안동대학교 민속박물관(1992), 짚풀생활사박물관(1993), 경기도박물관(1996) 등이 개설되고, 민속촌의 민속관이 개관(1996)했으며, 국립민속박물관이 독립(1993)되었다.¹⁴⁾

(6) 그렇지만 2000년대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 글로벌 개방사회, 노매딕 경쟁사회 등 이전과는 또 다른 무한 개방과 경쟁으로 급격히 쏠려가는 흐름을 맞이하면서 민속학이 더욱더 자기 연구의 방향성을 재구축하여야 하는 사회적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¹⁵⁾ 전근대 이래 농촌적 사회 기반을 주된 대상으로 삼던 기존 민속학의 연구 대상이 상당히 위축되었고, 대신에 도시적 삶의 형태로 전반적으로 이행한 현대 한국인의 삶의 양태 변화를 궁정하고 이를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변증법적 통합성으로 재구축하여 시의적이고 소통적이고 교감적인 민속학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2000년대의 모색 방향은 크게 두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는 학계 연합을 통한 역량의 결집을 지향하는 흐름이

13) 1955년 8월에 설립한 한국민속학회(회장 최상수, 김태곤, 최운식)와 1970년에 창립한 민족학회(회장 임동권, 김선풍, 인권환)가 2000년 11월 11일자로 한국민속학회 하나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14) 이상의 민속학 제도사적 정리는 장철수, 「광복 후 50년 연구사」(2000), 171~173쪽 및 최운식 외, 〈민속학 연구사 개관〉, 『한국민속학개론』(민속원, 1998), 44~47쪽 등을 참조하였다. 특히 장철수의 논문 「한국 민속학 50년」(1996)은 해방 후 50년간의 연구사를 세밀하게 정리 분석한 글이어서 이 방면의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15) 최근 학회의 주제가 민속학의 정체성을 주요 이슈로 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1차 한국민속학자대회(2004. 10)의 대주제는 〈21세기 민속문화와 민속학〉이었으며, 주제 발표는 「21세기 민속학의 과제와 전망」(강동학, 한국민속학회장), 「21세기 민속문화와 정체 방향」(나경수), 「민속문화의 자원화와 아카이브 구축 문제」(이정재), 「유형문화유산의 문화적 공유가치와 민중의 문화주권」(임재해), 「민속문화의 국제화 전략과 비교 민속학의 대응」(주영하) 등이 발표되었다.

제6차 한국민속학자대회(2009. 10)의 대주제는 〈민속학과 민속문화의 정체성〉이었으며, 「민속예술 교육의 목적과 민족 정체성」(정상박), 「민속문화에 담긴 민족성과 민중 성에 대한 고찰」(나승만), 「민속문화의 전승과 재창조」(김종대), 「민족문화학의 탈신화」(남근우), 「민속미학의 전통과 민족미학」(천혜숙),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세계화」(박성용) 등이 주제 발표되었다.

며, 둘째는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연계된 지역 민속과 문화의 현장을 내세우는 흐름이다.

이 첫째 방향은 인문학의 위기가 사회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민속학계 내부에서도 재도약을 위한 문제의식의 공유에서 출발하였다. 그 결과가 국립민속박물관의 주관 아래 민속학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민속학자대회로 가시화되었다. 이 한국민속학자대회는 2004년 10월 제1차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10월에 연차적으로 열리는 정례 대회로 정착되었으며, 2010년은 제7차 대회로서 “2010 충남민속문화의 해” 사업과 연계하여 국립민속박물관과 (사)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및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제1차에서 제4차(2007)까지는 한국민속학자대회 조직위원회 이름으로 강원도민속학회, 남도민속학회, 비교민속학회, 실천민속학회, 판소리학회, 한국구비문화학회, 한국무속학회,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민속학회, 한국민요학회의 10개 학회¹⁶⁾가 공동 참여하였고, 매년 10월 서울 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대회 주제는 1차 <21세기 민속문화와 민속학>, 2차 <한국민속과 문화콘텐츠>, 3차 <물질문화와 민속>, 4차 <지역민속과 지역문화 창출>이었다.

2008년 제5차 대회부터는 지역의 민속문화 발전 방향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확충되었고, 대회조직위도 느슨한 연합에서 사단법인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를 결성하여 더욱 강력한 학회연합체로 변모하였다. 지역의 민속문화 현장 방안은 국립민속박물관이 ‘민속자원발굴과 민속문화발전’을 내세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지방민속문화의 해”를 기획한 것으로 가시화되었으며, 그 첫해로 “2007년 제주민속문화의 해”가 추진되었다. 2008년은 “2008 전북민속문화의 해”, 2009년은 “2009 경북민속문화의 해”, 2010년은 “2010 충남민속문화의 해”, 2011년은 “2011 전남민속문화의 해”가 거행되었다. 2008년부터는 한국민속학자대회도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와 국립민속박물관 및 지자체(전라북도)의 삼자 공동 주관으로

16) 2006년 3차 대회까지는 강원민속학회원, 남도민속학회, 비교민속학회, 실천민속학회, 판소리학회, 한국구비문화학회, 한국무속학회, 한국민속학회, 한국민요학회의 9개 학회가 참여하였고, 2007년 4차 대회부터는 한국문화인류학회가 더 참여하여 총 10개 학회의 공동 연합이 이루어졌다. 2008년 5차 대회에서는 이를 학회 연합이 사단법인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2010년 회장, 나경수)를 결성하여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더욱 공고화되었다.

확대되었으며, 2009년은 안동 국학진흥원에서 경상북도와 개최하였고, 2010년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충청남도와 공동 개최하였으며, 2012년은 충북민속문화의 해로 설정되었다.¹⁷⁾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민속학 진영이 얼마나 숨 가쁘게 현대 한국사의 흐름과 함께 밀접하게 움직여왔는지 모른다. 비록 민속학이 대학의 전공학과로는 소수에 머물지만, 다학회적 무브먼트를 통해 다양 한 학회, 기관, 박물관의 설립이 매우 활발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1995년부터 본격화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말미암아 각 지방 스스로가 지역문화의 중요성에 눈을 돌리면서 민속학의 사회적 요청은 더욱 높아져왔다. 시·도·군에 설치된 전국의 지역 문화원은 그 지역의 문화 구심체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일선이 되어왔고, 현재 한중연에서 2003년 정부의 사업 승인을 거쳐 전개하고 있는 범국가적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은 이러한 지역문화의 종체 적 집성을 요청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 사업은 『세종실록지리지』(1454),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여지도서』(1757) 등과 같은 전통시대 향토문화 집성사업의 현대적 전개이기도 한 것이어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속문화의 집대성을 실질적으로 표방하는 바이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은 2003-2004년 경기도 성남시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출발하여, 2005년 진주·강릉·진도·청주의 4개 지역, 2006년 남원·제주북·제주·구미·음성·용인·공주·울진·울릉의 8개 지역, 2007년 여수·충주·양산·창원·부천·논산·칠곡·평북 향산의 9개 지역, 2008년 안동·진천·안산·김제·고창의

17) 지금까지 열린 대회의 주제와 연혁은 다음과 같다.

- 2004. 10. 1차 한국민속학자대회(대회조직위와 민박 공동): <21세기 민속문화와 민속학>
- 2005. 10. 2차 한국민속학자대회(대회조직위와 민박 공동): <한국민속과 문화콘텐츠>
- 2006. 10. 3차 한국민속학자대회(대회조직위와 민박 공동): <물질문화와 민속>
- 2007. 10. 4차 한국민속학자대회(대회조직위와 민박 공동): <지역민속과 지역문화 창출>
- 2008. 10. 5차 한국민속학자대회(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민박, 전라북도 공동): <민속학과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2008 전북민속문화의 해
- 2009. 10. 6차 한국민속학자대회(민단연, 민박, 경상북도 공동): <민속학과 민족문화의 정체성>/2009 경북민속문화의 해
- 2010. 10. 7차 한국민속학자대회(민단연, 민박, 충청남도 공동): <문화변동과 한국민속학의 대응과 역할>/2010 충남민속문화의 해
- 2011. 10. 8차 한국민속학자대회(민단연, 민박, 전라남도 공동): <다문화사회와 민속문화의 역할 또는 교육>/2011 전남민속문화의 해
- 2012. 10. 9차 한국민속학자대회(민단연, 민박, 충청북도 공동): 2012 충북민속문화의 해

5개 지역, 2009년 광명·김천·구로·고령·북한 개성의 5개 지역, 2010년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서산시, 제천시, 하동군, 양주시, 영암군의 6개 지역, 2011년 서울시 도봉구·강남구, 서귀포시, 인천 남구, 포천시, 영천시, 의성군, 친안시, 청도군, 중국 동북지역의 10개 지역, 2012년 화순군·진안군·군산시·순창군의 4개 지역으로 매년 확대되어가고 있다(한중연 향전사업 홈페이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민속학계의 학회 창립과 연구소 개설, 박물관 설립이 195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방대한 것은 민속학이 지니는 지역성과 토착성의 특성으로 인한 것과 우리 민속과 문화의 현장에서 만나는 매우 다양한 제재성으로 말미암는다. 특히 범학계의 공동 연합으로 전개되는 한국민속학자대회의 개최와 한국민속학술단체 연합회와 같은 조직의 출범은 우리 민속학계가 지니는 주요한 특성이라 이를 만하다.

이에 비견되는 것으로 전국역사학대회가 꼽힌다. 매년 5월에 개최하는 이 대회는 역사학 관련 학회의 연합인 전국역사학대회 협의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매년 10월의 민속학자대회와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 제53회 2010년 5월의 전국역사학대회(공동주제: 식민주의와 식민책임)에 참여하는 연구단체는 무려 15개 학회¹⁸⁾에 달하며, 이 외에도 협의회 소속은 아니지만 자유페널로 참여하는 학회가 6개 학회¹⁹⁾에 이른다. 이 중 2010년 후반기에 정식 주관학회의 하나로 진입한 한국역사민속학회(당시 회장 송화섭)는 1990년 출범하면서 민속의 역사적 지속과 변동에 관심을 두고서 민속현상의 역사학적 규명과 연구를 지향해왔으며, 민속학의 전통문화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인문사회학계를 통틀어 학회 설립의 숫자로 볼 때, 다채성의 특성을 지닌 학문 분파는 역사학과 민속학이 대표적이다. 민속학의 인접 학문인 인류학은 한국문화인류학회를 필두로, 한국교육인류학회·대한체질인류학회·한국스포츠인류학회 등이 있으나, 이 중 한국의 문화

18) 15개 학회에는 한국사연구회·경제사학회·대구사학회·동양사학회·부산경남사학회·역사교육연구회·역사학회·한국고고학회·한국과학사학회·한국미술사학회·한국사학회·한국서양사학회·한국여성학회·호남사학회·호서사학회가 속한다.『제53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집』(2010. 5. 30) 참조.

19) 2010년 5월 자유 페널 학회는 도시사학회·한국사상사학회·한국사학사학회·한국민족운동사학회·한국역사민속학회·한국여성사학회이다.

와 민속 연구에 깊이 관여하는 학회는 한국문화인류학회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인류학의 학문적 지향이 국제적인 타문화 비교의 방법론을 기본으로 삼고서 보편적 인류의 특성과 문화 연구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인류학은 지역학으로서 한국문화에 크게 관심을 기울인 까닭에 민속학과 연구 대상이 중첩되면서 불가피하게 학문의 경쟁과 협력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 학문의 지향성이 같지 않은 까닭에 상호 보완과 배타의 관계를 피할 수는 없다.²⁰⁾ 이 문제는 자문화 연구의 민속학과 타문화 연구의 인류학이 국내에서 처음 출발하던 일제시기에서부터 발생한 보완적-배타적 관계성이기도 하다.

III. 민의 재해석과 민속문화 연구의 확장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속학은 매우 다양한 다수 학회의 보유와 전국의 지역사회라는 커다란 저변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또한 한국 역사 속의 술한 문화와 전통을 자기문화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자산가이면서도 유독 학문적 정체성에 시달리는 기현상이 전개되어왔다.²¹⁾

독립과학으로서의 민속학 정립에 매진했던 정문연의 장철수 교수는 이렇게 민속학이 자기 학문적 독립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다른 학문에

20) 이때의 인류학은 실상 문화인류학을 이른다. 주지하다시피 인류학은 서구제국주의 시대에 인간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입론된 자연과학적 형질인류학과 인간의 사회적 집단 특성을 연구하는 사회인류학으로 발전하였고, 여기에다 인간집단의 문화 특성을 모색하는 문화인류학으로 확장되었다. 말하자면 인류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접점에 있던 학문분파인 셈이다.

현재 일본 동경대학 이학부 건물 현관 입구에 걸려 있는 안내 동판에서 “지질학교실, 광물학교실, 인류학교실”의 셋이 나란히 병설되어 있는 것은 인류학의 그러한 자연과학적 특성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동경대의 인류학교실은 1892년 동경제국대학 이과대학 내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당시 초기 주임교수 쓰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郎)가 인류학을 “인류의 여러 성질에 관해 연구하는 自然史 혹은 理學”(1895)으로 정의한 것도 마찬가지 인식의 반영이다. 최석영, 『일제의 동경제국대학 인류학교실의 창립과 운영』, 『한국사 연구』 151호(한국사연구회, 2010. 12); 최석영, 『일제의 조선연구와 식민지적 지식 생산』(민속원, 2012. 1), 84~101쪽에 제수록.

21) 최인학, 〈민속학의 의의〉, 『한국민속학』 개정판(새문사, 1994), 85쪽에서 “오늘날 한국 민속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첫째 연구의 경향과 방법론의 체계화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정재, 〈민속과 민족학〉, 『한국민속학개론』(민속원, 1998), 15~20쪽에서 민속학, 민족학, 인류학의 삼자가 번역과 수용과정에서 개념적 혼란을 일으킨 문제를 논하면서 한국민속학의 올바른 개념 정립을 촉구하였다.

예속 또는 종속적인 위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현상을 심대한 문제로 인식하였고²²⁾, 하지만 민속학이 도입된 지 60년이 넘었다는 “이 사실은 민속학의 학문적 출발과 전통이 다른 인문과학 분야에 비해 그렇게 나쁘거나 짧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민속학 역사의 긍정을 통한 방법론적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그가 쓴 『한국민속학의 체계적 접근』(2000)에서는 「한국민속학과 민속지의 체계」를 통해 인간과 공간, 시간의 삼간(三間) 구조체계를 연구대상론으로 제시하였고, 「연구방법론 서설」에서는 생활문화와 역사문화의 양면적 연구를 통한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연구 목표로 삼았다. 「광복 후 50년 연구사」에서는 민속학의 분야별 연구 대상으로 사회민속(가족·친족, 마을, 정보·교통), 경제민속(의식주 생활, 생업과 기술), 의료민속(개인위생, 민간의례), 의사소통민속(속담·수수께끼, 지명·방언), 의례민속(영역의례, 평생의례, 세시의례), 신앙민속(민간신앙, 풍수, 점복, 무속, 종교생활), 연희민속(신화·설화·전설의 언어연희, 민요·탈춤·전통연극·놀이의 행위연희), 예술민속(민간회화, 공예, 음악·무용, 판소리)이라는 여덟 가지 분야로 연구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민속학자들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대 인문과학의 제학문 중에서 지금까지도 자기 학문적 정체성을 고민하여야 하는 분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21세기 변모된 사회 환경에 적합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주강현은 “전근대 풍속의 해체와 새로운 풍속의 생성이라는 지난 100년간의 사회역사적 변동 속에서 현존 민속 개념으로는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수 없게 되었다”면서 “‘민속’이란 이름의 개념 확대”²³⁾를 중요한 이슈로 제기하고 있다.

관점의 확대를 위해 무언가를 새롭게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민속학의 영역 확대와 이론화 작업에 몰두해온 임재해는 〈현단계 민속학의 과제와 전망〉(2009)을 논한 중에서 “구체적인 자기

22) “1934년 송석하에 의해서 독립과학으로서의 민속학이 소개된 지 6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민속학은 아직도 하나의 독립과학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하지 못하고, 다른 학문에 예속 또는 종속적인 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은 민속학의 학문적 출발과 전통이 다른 인문과학 분야에 비해 그렇게 나쁘거나 짧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장철수, 「광복 후 50년 연구사」(2000), 154쪽.

23) 해방 전후기 순진태가 고심하였던 지점인 민속학과 역사학의 접점 문제를 되짚어보면서 역사민속학과 민속학의 문제의식을 성찰한 주강현, 「역사민속학의 학사적 의의와 연구방법론 일고」, 『역사와 현실』 74(한국역사연구회, 2009), 589쪽 참조.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개척하는 것은 어렵지만, 선행연구와 이론을 비평하는 작업은 비전문가라도 가능한 아주 단순한 작업”이라면서, 사회학자 조나단 터너(Jonathan H. Turner)의 『사회학 이론의 구조』를 인용하여 “그러므로 학문연구에서 ‘가장 단순하고도 쓸모없는 작업이 학문비평이라는 게임’이라고 했다”는 지적은 학문의 생산적 창출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밀한 대목이다. “실제로 화가보다 미술평론가가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없으며, [...] 논평자가 발표자보다 그러한 연구논문을 더 잘 발표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비유에서 보이듯이, 우리 민속학계가 그간 자기 학문의 방법론을 구축하는 일에 매진하지 아니 하였거나, 그러한 연구 시도를 끌어당겨 내려 펌하하고 비평하는 일에 더욱 능숙하였던 세태를 비판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기 문화의 실상을 온전하게 해석하려는 성찰적 대상론보다 외국학자들의 방법론 수입에 치중하여 서구학자들의 논저 인용을 근거로 자기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교사적 태도에 만족하기 일쑤이다”²⁴⁾라는 지적도 우리 학계의 풍토가 자기 자료 속에서 자기 방법론을 모색하고 구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도 정당한 것인가를 시사하는 말이다.

민속학은 ‘민(民)’의 ‘속(俗)’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전통적 용법으로 풍속(風俗)이지만, ‘속’을 지금 관점으로 재해석하면 문화, 생활문화, 삶의 양태, 또는 문화학 정도로 환연할 수 있으되, 문제는 ‘민’이란 개념이 가 시기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인식되고 변모되어간다는 사실을 환기하고자 한다.

민속학이 근대학문 분과로 태동하던 19세기 유럽에서 1846년 영국의 민속학자 톰스에 의해 서민(庶民) 또는 상민(常民)으로 번역되는 포크(folk)에다 지식, 지혜를 뜻하는 로어(lore)를 붙여 ‘상민의 지식’이란 의미를 지닌 합성조어 포클로어(folklore)란 말이 처음 생성되었다.²⁵⁾

24) 임재해, 「마을민속 연구와 인문학문의 길」, 『현단계 한국민속학의 문제와 전망-마을민 속을 중심으로』(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창설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집, 2009. 10), 8-9쪽.

25) 이 folklore란 용어는 1846년 8월 22일 『아테네움(The Athenaeum)』이란 학술잡지에 처음 실렸으며, 영국의 고고학자 윌리엄 존 톰스(William John Thoms, 1803-1885)가 필명인 앤브로즈 머튼(Ambrose Merton)으로 기고한 논문에서 당시 주제로 부각되었던 민간전승과 민간문예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folklore란 합성어를 처음 제의하였다. 30여 년 뒤 영국에 포클로어협회(1879)가 설립되면서 발간한 협회의 기관지 *Folk Record* 창간호에서 톰스가 머리말에 『아테네움』에 실은 자기 글을 그대로 전재하면서 일반화의 길을 걸었다. 1888년 강(Gand)에서 창간된 플랑드르어 잡지 『풀크스쿤데(Wolkskunde)』에는 ‘네덜란드 포클로어 잡지’란 부제가 붙었다[P. 생티브 저, 심우성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말을 제명으로 삼은 포클로어협회(1879)가 영국에서 설립되면서 민속학(folklore)이란 개념이 새로운 분과학의 학술이로 정착되었고, 이 용어가 독일과 네덜란드 등으로 파급되어가서는 독일어 폴크스쿤데(Volkskunde)가 성립되었다.

이 영국의 folklore와 독일의 Volkskunde가 민속학(民俗學)이란 번역어로 도입된 것은 1912년 일본 동경제국대학 산상회의소(山上會議所)에서 일본민속학회가 창설되면서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²⁶⁾ 중국에서는 1922년 12월 북경대학 『가요주간(歌謡週刊)』의 발간사에서 민속학(民俗學)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였다.²⁷⁾ 조선에서는 1920년대 주로 토속학(土俗學)이란 말이 쓰이다가 1930년대에는 민속학(民俗學)이란 용어로 정착하고 있다.²⁸⁾ 무엇보다 1932년 4월 송석하, 손진태, 정인섭,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이마무라 도모[今村翫] 등이 핵심 멤버로 창립한 조선민속학회(朝鮮民俗學會)와 이듬해 1933년 송석하를 발행인으로 한 『조선민속(朝鮮民俗)』이 발간되면서²⁹⁾ 민속학이란 용어가 크게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일본 동경상과대학으로 유학하였던 석남(石南) 송석하(宋錫夏, 1904~1948)는 1934년 교양문예지인 『학등(學燈)』 4호에서 9호까지 다섯

편역, 『민속학개론』, 대광문화사, 1981(원제 P. Saintyves, *Manual de Folklore*, Paris, 1936), 37~38쪽 참조. 저자 생티브(1870~1935)는 에밀 누리(Emile Nourry)의 필명으로, 프랑스민속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프랑스와 식민지의 민속학』(1934), 『프랑스와 식민지 물의 민속』(1935) 등을 펴내었다.

26) 주영하, 「동아시아 민속학에서의 민족과 국가: 20세기 초반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7-3호, 2004, 5쪽; 이상현 외, 『동아시아의 근대와 민속학의 창출』(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학술총서, 민속원, 2008)에서 이와모토 미치야[岩本通弥],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와 일국민속학(一國民俗學)의 창출」 참조.

27) 주영하, 위의 논문, 6쪽. 이 같은 인식은 이미 송석하의 「민속학은 무엇인가」에 잘 나타나 있으며, “중국의 근대적 연구태도는 妻子匪의 말에 의하면, 1922년에 설립된 북경대학의 ‘歌謡研究會와 風俗調查會’로서 처음이라고 한다. 그 후 중국에는 中山大學에서 1928년 3월 아래 『民俗』이란 잡지를 내고 있고, 그 후 中國民俗學會까지도 설립되었다”라고 서술하였다. 송석하, 『學燈』 제6호(1934년 5월호), 29쪽.

28) 한국민속학 개척 세대에 속하는 이능화, 최남선, 송석하, 손진태 등의 작업물 분석을 통해, 민속학(folklore), 토속학(ethnography), 향토학(Heimatkunde), 민족학(ethnology), 인류학(anthropology) 등의 개념이 혼재되고 충돌하면서 조선 민족의 풍속과 문화를 탐색하던 문제의식과 유럽 및 일본의 제국주의 민속학, 인류학 등과의 교섭과정을 면밀히 규명하여 초기 한국민속학의 학사적 의제를 선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김일권, 「근현대 민속의 변동과 한국민속종합조사」, 『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속학사적 의미』(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민속학회, 2011. 9) 305~330쪽 참조.

29) 남근우, 「조선민속학회 재고」, 『정신문화연구』 제27권 3호(2004), 29~66쪽.

번에 걸쳐 발표한 「민속학(民俗學)은 무엇인가」³⁰⁾를 통해 민속학 개념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접근³¹⁾을 펼치고 있어 이 시기 민속학의 인식을 살펴보는 중요한 논술이 된다. 이 글에서 민속학은 “인간의 일상생활(日常生活)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진지한 학문”으로 보면서, 또한 “민중을 연구하는 학문”, 즉 “민중(民衆)에 가장 접근한 사상(事象) 전체를 포괄한 부분을 연구 범위로 하는 학문”이라 파악하였다. 좀 더 부연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관습, 즉 행사·의례·금기 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무관심한 것이 통례이지마는 그 근원을 탐구하여보면 신앙과 생활의 변천상을 통하여 인류의 보편적 심리 이외에 특수한 민족의 심리상태와 원시신앙과 사회상태의 변천을 추측할 수 있고, 아울러 그 영향의 범위를 짐작할 수가 있는 동시에 그 민족의 장래 문화를 얼마 부분간이라도 예측할 수가 있다” 하여, 일상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관습연구를 민속학으로 보고자 하였으며, “종래 사학(史學)이 가장 꺼리던 신화, 민간설화, 원시미술, 원시신앙, 민속예술 등 각 방면의 것을 주저없이 학적으로 채택하자는 것”이라 하여 역사학과 민속학이 보완의 관계임을 인식하였다.

이처럼 조선의 초기 민속학 인식에는 민족 혹은 민중의 일상생활과 관습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전개되었고, 해방 이후 이를 계승한 한국민속학계도 마찬가지의 관점을 견지하였다. 다만 folk를 일상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는 인식과 계급적인 민중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두 가지 방식의 인식이 긴장관계 속에 전개되었다.

각종 민속학 개론서를 보면, 최인학은 민속이란 말은 ‘민간의 풍속’이란 말의 약어이며, 민속학 연구의 2대 지류인 구비문학과 민간신앙에다 민족문화 전반을 연구하는 것이라 보았다.³²⁾ 이정재는 한 문화권 내에서 다수가 향유하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문화로서,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의 양 방면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보았으며,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민족의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이 될 것을 말하였다.

30) 『學燈』 제4호(1934. 3), 20–22쪽; 『學燈』 제5호(1934. 4), 21–23쪽; 『學燈』 제6호(1934. 5), 27–29쪽; 『學燈』 제7호(1934. 6), 23–25쪽; 『學燈』 제9호(1934. 9), 23–25쪽에 연재 된 송석하, 「民俗學은 무엇인가」(1934)는 목차를 서언·정의·자의·학사·영역·용어·결언으로 구성하여 체계적 분석과 비판을 가하였다. 송석하, 『석남 송석하—한국민족의 재음미』(민속원, 2004), 3–24쪽.

31) 한양명, 「석남 송석하의 민속연구와 민속학사적 위상」, 『한국민속학』 28호(1996), 67쪽.

32) 최인학, 〈민속학의 의의〉, 『한국민속학』 개정판(1994), 17쪽, 57쪽.

다.³³⁾ 장철수는 한 민족의 기본적인 생활양식과 정신문화의 총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곧 토착적인 생활문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궁극적 목적으로 가진다고 보았다.³⁴⁾ 이상의 정의들은 일상 서민의 생활문화와 그것의 기층적인 민족문화를 민속학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동일한 기저에 있으나, 주강현은 역사 변혁의 주체로서 민중이 지녔던 민속적 세계관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민중의 생활사 연구를 지향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맟물려 있는바, 민속문화의 역사성과 민중성이 그것이다. 1980년대 민중운동의 사회적 성과와 문제의식을 민속학으로 접목시켰던 그는 민속을 청산해버려야 할 잔존문화로 서술해온 제국주의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시각을 비판하고, 식민지 지배하의 저항문화의 동력이자 역사 변혁의 정당한 주체로서 자국의 민족문화를 보존 발전시켜왔던 민속의 주체를 긍정하였고, 민족의 단위 속에서 민중의 물질적 기초인 물질생활 양식의 탐구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온 민중을 매개변수로 삼아 역사와 민속을 연계 짓고, 사회 변혁과 문화 변동³⁵⁾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들을 함께 고찰하는 작업이야말로 민속현상의 합법칙적 발생과 계통적 발생경로를 파악해내는 역사과학으로서의 민속학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사회와 문화의 변화 발전 주체로서 역사의 주체와 민속의 주체가 긴밀히 결합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관점에 기반한 역사민속학을 주창하였다.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였던 조선후기가 갖는 전환기적 성격 속에서 전통사회의 기층을 형성하였던 향촌사회의 민속을 이해하고 생산노동의 기층이었던 역사적 민중의 생산풍습과 물질생활 범주를 탐구하는 일이 한국역사민속학에 주어진 연구과제라고 보았다.³⁶⁾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한국역사민속학회에 발표된 글이 모두 그러한 방향으로 쓰였는가와는 별개로 역사민속학의 문제의식과 관점은 민속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제고하는 방법론의 심화를 가져왔다는 일정한 평가가

33) 이정재, 〈민속과 민속학〉, 『한국민속학개론』(1998), 11-12쪽.

34) 장철수, 「한국 민속학과 민속지의 체계」(2000), 13쪽, 46쪽.

35) 전통의 지속과 변화란 시각으로 1980년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을 다룬 임재해, 「한국 사회의 변동과 문화적 전통의 변혁성」, 『문학과 사회』 17(1992)도 참조할 만하다.

36) 주강현, 「역사와 민속: 변혁의 문제」, 『역사 속의 민중과 민속』(한국역사민속학회 편, 이론과 실천, 1990), 10-46쪽; 정승모, 「조선풍속과 민의 존재 방식」, 『역사 속의 민중과 민속』(이론과 실천, 1990).

가능하다.

하지만 시대의 환경이 다시 변하여 계급적인 민중생활사 성격은 많이 완화되었고, 일반적 범주의 민속론과 보완관계를 이루면서 접근되고 있다. 도시생활과 도시공간이 크게 확대된 지금은 도시의 시민과 서민을 중심적인 민속 주체로 삼으려는 이른바 대중민속학 내지 도시민속학의 관점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강등학은 전통민속과 현대민속으로 구분한 뒤, 근대 이후 신분 해방과 산업사회가 전개되면서 도시를 공간적 배경으로 성장한 도시의 소시민을 현대민속의 문화적 실현주체로 삼고, 이들이 향유하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및 민속문화의 삼자 범주를 하나로 연결하는 현대민속론의 수립을 제언하였다.³⁷⁾

나승만은 “이제 민속문화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문화, 사회적 약자의 문화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민중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표로 따져보면 사회적 다수 세력이다. 표가 권력을 만드는 현 상황에서 민속문화는 더 이상 사회적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의 문화로 보아서는 좀 어색해진다”³⁸⁾라고 하여, 민중의 시대적 재해석을 요청하였다.

민속 범주의 재해석을 요청하는 인식의 변화가 주강현에게서도 읽혀지며, “민속이란 이름의 개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근대 풍속의 해체와 새로운 풍속의 생성이라는 지난 100년간의 사회역사적 변동 속에서 혼존 민속 개념 가지고는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수 없게 되었다. 범고창신하여 새롭게 재해석되고, 신화·철학·풍속·역사·문학·예술·생태·영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조망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³⁹⁾라고 하여, 민속 개념의 외연적 확장과 학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그간 민속학계가 ‘한국민속학은 한민족의 기본 생활양식과 정신·물질문화의 총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대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⁴⁰⁾고 파악한 것은 앞서 장철수의 민속학 정의와 다르지 않은 관점인데, 여기에는 네 가지 주제어가 추출된다. 첫째, 하나의 민족 단위, 곧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해온 한민족을 민속학의 외연으로 삼고, 둘째, 사회 구성원

37) 강등학, 「21세기 민속학의 과제와 전망」, 『한국민속학』 40집(2004. 12), 25~40쪽.

38) 나승만, 「민속문화에 담긴 민족성과 민중성에 대한 고찰」, 『민속학과 민족문화의 정체성』(2009년 한국민속학자대회집, 2009. 10), 21쪽.

39) 주강현, 「한국민속학의 범주와 영역의 혼재」, 『역사민속학』 제15호(2002), 333쪽.

40) 주강현, 위의 논문, 310쪽.

들의 기본 생활양식을 규명하는 목적을 지니며,셋째, 민속의 주체가 내재화시켜온 정신문화와 넷째, 민속의 물리적 토대를 제공하는 물질문화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한국민속학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속학은 다시금 탈계급적이고 일상적인 민의 풍습과 생활양식을 다루는 학문이 된다.

이처럼 민속학의 민의 성격과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민속학의 학문 방향성이 정초되고 확장성이 허용된다. 특히 민의 성격에서 탈계급성을 지향할 때 우리 민속학의 내적 심화와 외연 확장이 심화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기존 연구에서 실상 전통문화 연구와 현대민속 연구라는 이질적인 두 방면을 대개 포괄하려 하였지만, 전통문화 연구 분야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지배계층의 문화를 적절하게 포괄하는 이론 개발이 부족하였다고 본다. 계급적 대중으로 보든, 소시민적인 서민 또는 동시대 일상적인 사람들로 보든 간에 우리 민속현상의 기저에는 전통시대 주류 문화의 영향관계가 밀접하다. 민중, 서민과 같은 소박한 민의 관점으로는 조선시대 왕실문화라든가 사대부 양반문화, 유교와 불교의 고전종교 등과 교감하였던 민속학적 메커니즘을 풀어내기가 어렵다. 이에 전통문화 연구를 대립적인 민의 관점을 넘어서서 전통시대를 살아간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 문화연구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철수는 민속학 연구방법론 서설을 쓰면서, 피지배 계층의 민간문화가 가지는 이중성의 모순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는 민속연구 방법론을 제기하였다. 조선의 지배이념으로 채택된 유교문화에 의거한 조상숭배문화라든가, 농경민속의 제도적 배경이 되는 조선의 국가의례 등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는 민의 탈계급성을 논하면서, 왕실의 문화는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권력의 근거를 백성에게서 찾으려 하였던 까닭에 양자 간에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하였고, “따라서 왕궁문화와 의례의 상당한 부분이 농업과 농경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 왕궁문화의 역사성과 예술성, 세련미 그리고 농업·마을문화의 대동성 수렴 등은 한국 민족문화의 연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피력하였다.⁴¹⁾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 조선 왕실의 민속연구란 말도 성립 가능한 것이다. 왕은 지배계층의

정점인데 어떻게 민의 속이냐 하는 문제의식을 넘어서서, 조선의 왕실 구성원들조차 전통시대 일상의 사람들 범주 속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 왕실의 유산인 장서각을 핵심 자료로 삼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서는 이 자료의 보고를 다양하게 접근하고 연구할 관점의 확대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에 조선의 궁중생활 연구를 민속학의 내부 주제로 끌어와야 한다고 믿은 장철수의 방법론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사실 세시의례를 연구할 때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등 각종 세시기류 속에는⁴²⁾ 민의 풍속보다는 사(士)의 풍속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사의 일반 생활양식과 풍속은 다시 조선 왕실의 생활양식에 깊숙이 교감되어 거의 동일시될 만큼 혼재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의 주류 사회 이념인 유교적 성학의 규범 속에서 군주의 생활양식을 정초하고자 하였던 성리학의 성학(聖學)사상에 기인하여 발생한 현상이다. 현재 많은 유무형문화재와 지정기념물, 세계문화유산 등재물이 민속학 활동과 무관하지 않듯이 지배계층인 사인(士人)의 문화를 민속학의 민의 범주로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때 민속의 민인 folk는 단순히 사람들, 곧 people을 지칭하는 것이다.⁴³⁾ 그리고 조선 왕실의 민속연구라 할 때의 민속은 계급적 맥락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일상 생활양식을 지칭하는 관점으로서의 민속이다. 이렇게 보면 조선 왕실의 일상생활사 연구가 민속학의 또 다른 내적 주제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다.

IV. 민속학의 학제간적 복합성과 다섯 분과학 방법론

우리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문화 양태를 학문 대상으로 삼는 민속학은 어느 학문이 다 그렇듯이 매우 복합적인 분과학을 공유하고 있다. 민속학

41) 장철수, 「연구방법론 서설」, 『한국민속학의 체계적 접근』(2000), 60–69쪽.

42) 김일권, 「조선후기 세시기에 나타난 역법학적 시간 인식과 도교 민속 연구」, 『역사민속학』 제29호(2009), 145–184쪽.

43) 사전적 의미로 보면, folk가 집합적 명사로서 생활양식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지나기도 하고, the folks가 서민, 민중의 뜻 외에 전승을 같이하는 민족이란 의미를 지나기도 한다. people 역시 집합적으로 사람들을 뜻하고, a people은 주민, peoples는 국민 혹은 민족, the people은 common people로서 서민이나 일반인을 뜻한다. 요컨대 folk는 이제 민이 아니라 사람들로 재해석할 만하다.

의 기초로서 민속학사론과 민속현상학⁴⁴⁾으로 대별되는 민속학방법론을 중심으로 두고, 학제간 측면에서 본다면, ① 구비민속학, ② 역사민속학, ③ 종교민속학, ④ 인류민속학, ⑤ 사회민속학의 다섯 갈래 복합학문이 민속학에 적·간접적으로 크게 관계를 맺어왔다.⁴⁵⁾ 이 말은 환연하면 민속학이 독립과학으로서의 방법론을 정치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들 인접학문과의 교섭성을 긍정하면서, 각기 학문의 특성을 수용하고 각기 콘텍스트에 적합한 이론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상술하기 전에, 그 외 방법론인 비교민속학과 실천민속학 혹은 현장민속학 등은 학간 교섭이라기보다는 민속학의 접근 태도에서 인접 문화권과의 비교를 지향하고, 탁상식 연구가 아닌 민속현상이 숨 쉬는 현장의 실천적 접근을 기초 방법론으로 삼아야 한다는 관점의 환기를 지향하는 방향이다. 어느 학문이든 비교학이 전제되지 않은 학문은 존립할 수가 없으며, 특히 문화를 다루는 민속학은 큰 범주에서 비교문화학이기도 하므로 비교민속학의 방법론적 정당성은 충분하다.⁴⁶⁾ 마찬가지로 문헌연구를 보완하는 현장연구와 학문의 실천성까지 추구하는 실천민속학의 지향성 역시 소중한 가치이다.⁴⁷⁾

우선 한국 민속학의 주류적 관심사를 살펴보기 위하여 민속학방법론

44) 민속현상학은 향후 민속학의 이론적 정치를 위해 필자가 관심을 두는 주제어이다. 이것은 민속학의 주된 연구 대상을 대상화·이론화하여 민속학의 학적 경계를 개발하려는 고심과 관련이 깊다. 민속현상의 나열이 아닌 민속의 현상 자체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관점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구체적인 작업은 후일을 기약한다.

45) 구비문화학이란 말은 있어도 이를 분과명으로 구비민속학이라 쓰긴 조심스럽고, 인류민속학도 문화인류학이 이미 있는 것이어서 조어로 쓰기가 어렵지만, 작업 편의상 민속학 중심으로 인접 학문과의 접목을 시도하여 일률적으로 붙여 사용하였다.

46) 1983년 10월에 창립한 비교민속학회는 “일찍부터 세계화에 초점을 두고 해외조사를 비롯해 비교연구라는 기치를 내걸고 다른 학회와 차별화해왔습니다. 아직도 과제는 많지만 이제 세계화에 걸맞은 연구를 위한 발판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비교민속학회의 정체성은 국제적 비교연구의 기조를 더욱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문현 섭렵과 해외조사도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쪽만 봐서는 비교 연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여, 국제적 비교문화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비교민속학회 홈페이지 소개글(회장 윤광봉) 참조.

47) 1997년 12월에 출범한 실천민속학회는 창립취지에서 “한국 민속의 본질과 특성을 규명 하며 이를 현대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 12월에 출범했습니다. 기존 민속학회와 달리 실천성 지향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지향하는 실천성은 학회의 상징인 삼족오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 신화적 존재로서의 꿈과 땅을 굳건하게 딛고 있는 현실성이 변증법적 통합을 이루고 있는 삼족오의 상상력은 실천민속학의 훌륭한 상징입니다”라고 언명하고 있다. 실천민속학회(회장 배영동) 홈페이지 창립취지문 참조.

분야를 담고 있는 기존의 민속학 개론서를 보면, 대개의 구성이 민속학의 정의와 연구 범주, 방법 등을 다루는 민속학사편과 본문으로 주요 민속 분야를 개괄하는 민속현상편이라는 두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민속학 개론서 성격을 띠는 아키바의 『조선민속지』(六三書院, 1953: 심우성 역, 동문선, 1993)에서부터 보이는 형태인데, 제1장에 서설편(연구의 개관, 사회와 민속)을 두고, 나머지 제2~5장은 집의 민속(2장), 마을의 민속(3장), 섬·산의 민속(4장), 민속의 비교(5장)에 이르는 민속현상편을 수록하였다.

1970년대 이후 다종 쏟아진 한국의 민속학 개론서 중 가장 대표로 꼽히는⁴⁸⁾ 이두현·장주근·이광규 공저의 『한국민속학개설』(민중서관, 1974) 역시 제1장 서론편과 마을과 가족생활(2장), 의식주생활(3장), 민간신앙(4장), 세시풍속(5장), 민속예술(6장), 구비문학(7장)의 민속현상을 개설하고 있다.⁴⁹⁾

민속종합보고서류는 민속학사편이 생략된 채 곧바로 민속현상을 분야별로 개관하는 방식이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남편, 1969)를 보면, 총론(1편, 지리/역사), 사회(2편, 부락/친족/가족/통과의례/경제), 민간신앙(3편, 무속/부락·가정신앙/유불도), 산업기술(4편, 농업/사냥·채집/수산/공예), 의식주(5편, 복식/음식/주거), 민속예술(6편, 음악·무용/연희/세시풍속/민속놀이), 구비전승(7편, 민요/설화/속담·미언/풍명·선구명), 지표(8편)로 구성된다.⁵⁰⁾ 북한의 민속학 개론은 남한과 달리 민속학사 서술이 없이 주제별 민속을 다루고 있다. 리제오의 『조선민속학』(1989)은 조선 사람의 민족적 생활풍습의 형성과 발전(1장), 물질생활풍습(2장), 문화생활풍습(3장), 가족생활풍습(4장)으로 구성하였고, 북한사

48) 장철수, 「연구방법론 서설」 『한국민속학의 체계적 접근』(2000), 84쪽에서 이두현 외, 『한국민속학개설』(1974)과 박계홍, 『증보 한국민속학개론』(1987)을 대표로 꼽았다.

49) 박계홍, 『증보 한국민속학개론』(1987) 또한 민속학의 개념(1장), 민속학방법론(10장) 부분과 본문으로 의식주(2장), 통과의례(3장), 민간신앙(4장), 속신(5장), 생산의례(6장), 세시풍속(7장), 민속놀이(8장), 도시민속학(9장)을 개술하였다. 최운식 외 공저인 『한국민속학개론』(민속원, 1998)에도 민속과 민속학(1장)을 다룬 뒤, 세시풍속과 일생의례(2장), 민간신앙(3장), 민속문학(4장), 민속놀이와 예능(5장), 가족과 마을생활(6장), 축제와 민속현장(7장)을 개설하였다.

50) 『한국민속대관』(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0)의 구성 역시 주제별 민속개관으로 구성되었는데, 사회구조·관혼상제(1권), 일상생활·의식주(2권), 민간신앙·종교(3권), 세시풍속·전승놀이(4권), 민속예술·생업기술(5권), 구비전승·기타(6권)를 목차로 수립하였다.

회과학원의 『조선민족풍습』(1990)은 로동생활풍습(1장), 식의주풍습(2장), 문화생활풍습(3장), 가족생활풍습(4장)으로 구성하였다.⁵¹⁾

이상에서 보듯이 어떤 민속학 개론에서도 민속학의 학제간 방법론을 다루거나 여기에 기반한 이론의 서술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이 분야의 서술에 게을리한 때문에 민속학이 자기 학문적 정체성과 이론의 부재로 비춰졌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1990년대 전후 문화학의 이론에 목말라하던 우리에게 널리 읽혔던 『문화를 보는 열다섯 이론』(아야베 쓰네오 저, 이종원 역, 인간사랑, 1987)은 19세기 이래 다양하게 구축되었던 문화인류학의 주요 이론을 소개하여, 우리의 문화연구 방법론으로 적지 않게 참조가 되었다. 위에서처럼 한국민속학이 민속현상의 주제별 서술에 여전히 주목하고, 동어반복되는 민속학의 정의와 연구사 개설에만 몰두할 때에는 앞으로도 여전히 이론 민속학의 개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속학적 이론의 개발을 위해 무엇보다 구비민속학과 역사민속학, 종교민속학, 인류민속학, 사회민속학이라는 다섯 방면의 학제간적 복합 학문에 대한 연구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의 개설서 편차 중에서 설화·전설·신화·무가·민요·속담류의 구비전승 주제는 구비문학이 이론 중요한 공헌이다. 해방 이후 국문학 출신의 민속학자가 1970~1980년대를 풍미하였고, 현재에도 여전히 주류 경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19세기 유럽에서 포클로어(folklore)적 분과학문이 성립할 때부터의 지향성이 여전히 각국 민속학의 주류를 점유하여온 것과 동궤의 흐름이다.

둘째, 개설서 편차 중 빠지지 않고 민속학의 2대 지류⁵²⁾로 평가되는 민간신앙 주제와 한국의 종교문화적 특성상 그 중요성이 낮아지지 않는 무속 연구 등은 종교현상학과 종교사학적 관점과의 끊임없는 교섭을 요청하는 분야이다. 민간의 속신, 공동체 신앙, 상장제례와 조상숭배의 유교민속, 세시풍속과 의례, 불교와 도교민속, 점복과 주술 주제 등에서도 종교민속학적 방법론의 개발과 접목이 기대되기 마련이다.

셋째, 역사민속학은 이미 앞서 개진한 바 있듯이 민속학의 민속 주체 논의를 심화시킨 공헌이 있으며, 역사적 민중의 삶과 양식, 행위, 관습,

51) 장철수, 「연구방법론 서설」, 『한국 민속학의 체계적 접근』(2000), 94쪽 재인용.

52) 최인학, <한국민속학의 성립과 발전> 『한국민속학』 개정판(새문사, 1994), 57쪽에서 민속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구비문학과 민간신앙을 민속학 연구의 2대 지류라고 할 만하다고 평가하였다.

의식, 의례 등의 역사학적 접근을 통해 민중생활사 연구라는 학적 기반을 만들었고⁵³⁾,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는 최근 학계에서 생활사와 문화사라는 사적 접근의 중요성과 인식이 확대되는 흐름의 기초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⁵⁴⁾ 개설서류에서 마을과 친족, 관혼상제, 의식주, 생산의례 등에 대한 역사민속학적 연구는 많은 부분에서 민속의 지속과 변동을 규명하는 1차 토대적 작업이라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전통문화는 그 대부분의 준거가 조선시대의 문화사에 놓여 있기에 조선의 향촌사회사, 친가족제도사, 평생의례사, 종교의례사, 세시풍속사 등에는 역사민속학적 연구방법론을 요청한다. 여기에는 독립과학으로서의 민속학을 강조하던 장철수가 민속학의 조사 연구방법론에서 조선시대 지배계층의 문화연구를 위해 많은 할애를 해왔듯이⁵⁵⁾, 앞으로의 역사민속학이 탈계급적인 관점에서 보편적 한국인의 역사학적 민속현상 연구 방향으로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상의 세 분야 학문이 인문과학에 기반한 것에 비해 인류민속학과 사회민속학은 사회과학에 기반한 학제간 교섭을 추구한다.

넷째로, 일제는 피식민지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의 민속과 문화를 연구하면서 인류학의 방법론을 크게 접목하였으며, 이것은 대만과 만주 등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초기 조선민속학자들인 손진태, 송석하 등도 이 같은 일제를 통한 인류학의 관점을 크게 도입하여 중시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인류학 진영의 한국민속학 연구는 중요한 공헌을 이루었다. 이 때문에 민속학의 부족한 방법론을 도입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많은 민속학자들이 한국문화인류학회(1958, 초대 회장 임석재)의 발족에 적극 참여하였고⁵⁶⁾, 문공부 문화재관리국의 지원을 받아 1968년(전남)부

53) 주강현, 앞의 글(2002), 315쪽에서 기존 한국민속학계를 주도해온 두 중심으로 국문학계 기반의 구비민속학 분야와 독자적 전공창출을 하고 있는 역사민속학을 제시하였으며, 학계의 흐름도 한국민속학회, 비교민속학회, 한국역사민속학회의 3대 학회가 주도하여 민속학의 흐름을 잡아가는 실정이라고 평가하였다.

54) 한국역사민속학회 홈페이지의 회장(송화섭, 2010) 인사말로 쓰인 <역사민속학의 길>에서, “폐지배층의 문화는 기록으로 전승되지 아니하고 [...] 그들의 생활 속에서 전승하는 민속소를 찾아서 역사학적으로 연구하는 즐거움을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원들은 만끽해 왔습니다. 역사학과 민속학의 틈새에 보이는 역사민속학의 바다에서 민중생활사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2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 최근 역사학의 동향이 생활사, 문화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원들은 역사 연구에 선각자였고,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라는 자평적 논급을 참조할 만하다.

55) 장철수, 「연구방법론 서설」, 『한국민속학의 체계적 접근』(2000), 105–107쪽.

터 1980년(관북)까지 전국민속종합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개론서류에 민속학의 현장조사 방법론과 민속지 작성론에는 대개가 인류학의 참여조사 방법론을 활용하여 개진하고 있다.⁵⁷⁾ 그런데 조사방법론 외에 내용적인 민속의 주제사 서술에는 아직 인류학적 안목의 절목이 생성되어 있지 않다. 내용연구의 기여까지는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도시민속학, 통과의례, 의식주 생활문화 등 여러 분야의 이론적 개진과정에서 보편적 인류를 추구하면서 축적한 인류학의 비교이론을 적극 원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대인의 민속현상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인류민속학적 접근의 중요성은 증대된다.

끝으로 일상생활의 사회 관계와 질서를 규명하기 위한 분과인 사회민속학은 독립적인 생활과 의례 단위인 가족, 마을, 지역을 연구의 기초 단위로 삼는다. 민속의 주체인 서민대중이 공동체생활을 영위하면서 제반 사회의 관계와 질서를 생성하고 그 기반 위에 여러 생활양식을 배태하는 것이기에 사회학적 방법의 절목은 아주 긴요하다. 전통시대 향촌민속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확장한 것이다. 민속학사에서 1960년대 들어 사회인류학적 방법을 통한 김택규(1964)에 의해 혈연의식에 근거한 종족마을의 일상생활 구조가 규명되는 것에 고무되어 민속학 내부에서도 사회민속학의 중요성과 가능성성이 크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⁵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출범할 당시 1980년 3월 부설 한국대학원이 개원하였고, 1982년 1월 전공을 학과단위로 승격하면서 7개 학과 14개 전공을 편제할 때 민속학은 사회민속학과(사회학·민속학) 소속이었다. 여기에도 사회민속학의 관점이 배어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민속학은 구비민속학, 역사민속학, 종교민속학, 인류민속학, 사회민속학이라는 최소 다섯 분과와의 학간 교섭을 해왔다. 앞으로 이들 학간 관점에 대한 이론적 개발을 통해 민속학의 학문방법론적 정체성이 더욱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이 다섯 분과학을 산술로만

56) 이정재, 〈민속과 민속학〉, 『한국민속학개론』(1998), 18쪽.

57) 장철수의 「한국 민속학과 민속지의 체계」는 인류학적 방법에 바탕하되 한국적 민속지 형에 적합한 모델로서 인간과 공간, 시간이라는 삼간체계로 재해석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장철수, 「한국 민속학과 민속지의 체계」(『역사민속학』 창간호, 1991; 『한국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2000, 13~49쪽 재수록).

58) 장철수, 「광복 후 50년 연구사」(2000), 217쪽; 최인학, 〈사회학적 연구의 접근〉, 『한국 민속학』 개정판(1994), 80~81쪽.

본다면 셋은 인문과학이고 둘은 사회과학이어서, 민속학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접점지대에 놓인 학문이 된다.

실상 민속학은 인문학의 지향성을 크게 지니고 있으나 사회과학 방법에 많이 기대기도 하였기에 입장에 따라서 자의적이 되기 십상이지만, 최근 한국연구재단 분류표(2009)를 참조하면 민속학은 인문학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4호〉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09. 9. 4.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공포)에 의하면, 민속학은 대분류로서 인문학인 “HA 역사/고고학”이고, 그 속의 중분류로서 “HA07 민속”으로 편장되었다. 인류학은 대분류가 사회과학인 “SD 사회/인류/복지/여성”이고, 그 하위의 중분류로서 “SD05 문화/인류”로 되어 있다. 이것은 학계 통념이 민속학을 인문학인 역사학의 한 분과로서 인식한 결과의 반영이다. 이 점 또한 향후 우리 민속학의 연구 방향과 지향성에 중요한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V. 맷음말: 전통문화 연구와 고전민속학적 전망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는 인문학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청을 쉼 없이 하고 있으며, 문화대중들은 고급문화 강좌의 향수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전통적 농업기반과 제조업의 1, 2차 산업구조가 밀려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디지털 혁명의 확산 일로를 따르는 21세기 사회는 이 같은 요구를 점점 증대해나갈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이렇게 변동하는 시대정신에 맞추어 우리는 민속학의 개념적 확장을 시도하여야 한다. 민의 주체성만을 고심하기에는 이미 문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너무 거센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민속학은 민속과 문화의 학문, 곧 “민속문화학”을 지향하고 싶다. 사회의 시대정신에 걸맞게 학문의 개방을 며뭇거리지는 말되, 자기 정체성 심화를 위한 왕성한 이론 개발에 몰두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 30년 전통을 따라 지속해온 우리 민속학전공은 민속문화학의 방법론을 개발하여 본원 장서각 소장의 각종 의궤와 문헌 자료, 구비문학 자료 등을 직접적으로 천착함으로써, 향후 조선 왕실의 민속과 문화 연구, 조선 사인의 민속과 문화 연구 등과 같은 도전적

토대	양태	영역	분과학
- 민속학방법론 - 민속현상학	- 고전민속학 - 현장민속학 - 비교민속학	- 전통민속학 - 현대민속학	- 구비민속학 - 역사민속학 - 종교민속학 - 인류민속학 - 사회민속학

과제를 수행하여 고 장철수 교수의 유지를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연동되는 전통문화 연구는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여전히 추구하여야 할 고전민속학의 주요 영역이며, 전통문화 연구의 중심을 추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비전과 정체성에도 매우 부합하는 방향이라 할 것이다.

고전사상, 고전음악이 그러하듯 시대를 넘어서도 향기가 있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풍부한 것을 고전(古典, classic)이라 한다. 민속학의 전통 주제들도 마찬가지로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뜻에서 ‘고전민속학 (classical studies of folklore)’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현대적 문화 추이에 관심을 두고 현장조사를 중시하는 현장민속학(fieldwork studies of folklore)에 대비하여, 민속현상의 본질과 내원을 추구하는 고전민속학을 민속학의 주요 영역으로 설정할 만하다 하겠다. 장철수 교수가 피력한 바 있듯이, 이러한 학문이 다름 아닌 한 민족의 생활양식과 정신문화 및 물질문화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우리 한국민속학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 기대한다.

민속학의 학문틀을 이해하는 일환으로 시도한 이상의 단상을 거칠게 개념화하면 위 표처럼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추후를 기약한다.

참 고 문 헌

- 강등학, 「21세기 민속학의 과제와 전망」. 『한국민속학』 40집, 2004.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관』. 1980.
- 김일권, 「근현대 민속의 변동과 한국민속종합조사」. 『한국민속종합조사의 성과와 민속 학사적 의미』,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민속학회, 2011.
- _____, 「조선후기 세시기에 나타난 역법학적 시간 인식과 도교 민속 연구」. 『역사민속학』 제29호, 2009.
- 나승만, 「민속문화에 담긴 민족성과 민중성에 대한 고찰」. 『민속학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2009년 한국민속학자대회집, 2009.
- 남근우, 「조선민속학회 재고」. 『정신문화연구』 제27권 3호, 2004.
- 박계홍, 『증보 한국민속학개론』. 형설출판사, 1987.
- 송석하, 『석남 송석하-한국민속의 재음미』. 민속원, 2004.
- 심우성 편역, 『민속학개론』. 대광문화사, 1981(원제 P. Saintyves, *Manual de Folklore*, Paris, 1936).
- 이광호, 「조사: 장철수 선생님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납니다」. 『역사민속학』 12호, 한국역사 민속학회, 2001.
- 이상현 외, 『동아시아의 근대와 민속학의 창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민속원, 2008.
- 이정재, 〈민속과 민속학〉. 『한국민속학개론』, 민속원, 1998.
- 임재해, 「한국사회의 변동과 문화적 전통의 변혁성」. 『문학과 사회』 17, 1992.
- _____, 「마을민속 연구와 인문학문의 길」. 『현단계 한국민속학의 문제와 전망』,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창설 30주년 기념학술대회집, 2009.
- 장철수, 「한국 민속학과 민속지의 체계」. 『역사민속학』 창간호, 1991.
- _____, 『옛무덤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5.
- _____,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5.
- _____, 「한국 민속학 50년」. 『한국학보』 82집, 일지사, 1996.
- _____, 『한국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민속원, 2000.
- 정구복, 「장철수 교수 약전」. 『한국학중앙연구원 30년사』, 2009. 2.
- 정승모, 「조선풍속과 민의 존재 방식」. 『역사 속의 민중과 민속』, 이론과 실천, 1990.
- 주강현, 「역사와 민속: 변혁의 문제」. 『역사 속의 민중과 민속』, 이론과 실천, 1990.
- _____, 「독립학문으로서의 민속학을 걸었던 외길의 민속학자」. 『역사민속학』 12호, 2001.
- _____, 「한국민속학의 범주와 영역의 혼재」. 『역사민속학』 15호, 2002.
- _____, 「역사민속학의 학사적 의의와 연구방법론 일고」. 『역사와 현실』 74호, 한국역사

- 연구회, 2009.
- 주영하, 「동아시아 민속학에서의 민족과 국가—20세기 초반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7-3호, 2004.
- 최석영, 「일제의 동경제국대학 인류학교실의 창립과 운영」. 『한국사연구』 151호, 한국사 연구회, 2010.
- _____, 『일제의 조선연구와 식민지적 지식 생산』. 민속원, 2012.
- 최운식 외, 『한국민속학개론』. 민속원, 1998.
- 최인학 외, 『한국민속학』 개정판. 새문사, 1994.
- 한양명, 「석남 송석하의 민속연구와 민속학사적 위상」. 『한국민속학』 28호, 1996.

국 문 요 약

이 글은 한중연 민속학 전공 30주년에 즈음하여 민속학의 학문적 독립과학을 주창하다 작고한 고 장철수 교수의 10주기를 기리는 일환으로 한국민속학의 학제간적 복합성과 분과학적 특성을 짚어본 글이다.

무엇보다 해방 이후 전개된 민속학 진영의 흐름은 매우 다양한 학회 설립과 기관 창설을 통해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 정립에 몰입하였던 다학회적 특성이 활발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민속문화의 기반이 향토와 지역성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국 도 단위의 민속문화의 해 선정과 범학계연합인 한국민속학자대회가 국가기관과의 유기성 속에 공동확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민속문화가 민족문화, 전통문화, 지역문화, 향토문화로의 정체성을 재생적으로 확인하는 일환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외적 특성 외에 민속학의 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민속학의 주요 기초로서 민속학사론과 민속현상학으로 대별되는 민속학방법론을 중심으로 두고, 학제간 측면에서 구비민속학, 역사민속학, 종교민속학, 인류민속학, 사회민속학의 다섯 인접학문이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면서 복합학문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의 설화적이고 구비 전승적인 구비문화민속학은 민속학이 학적으로 출발한 주요 배경으로 거대한 기반을 엮어왔고, 민간의 속신과 민속신앙, 무속현상 등을 다루는 종교민속학은 민속 주체의 정신문화적 해석학에 크게 기여해왔다. 또한 각종 민속현상의 역사적 해명과 해석을 추구하는 역사민속학은 기존 정통사학이 소홀히 한 민중의 삶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족을 하나의 인류단위로 보고 한국인의 문화적 관습을 조사 분석하는 인류민속학 역시 민속학의 현지조사적 접근과 민속지적 특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리고 인간의 사회 조직과 사회문화적 특질을 드러내려는 사회민속학은 일상생활의 민속현상과 마을이나 지역 단위의 연구기초를 심화해왔다.

이렇게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인접 분야에 크게 기대고 있는 민속학이 자기 학문의 이론적 심화를 위하여서는 이들 분과학과의 복합적 방법론 개발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민속의 주체가 되는 민이 시기적으로 끊임없이 변동하는 까닭에 정합적인 민의 재해석을 통해

민속학의 학적 독립과 자유로운 학문 추구를 노정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에 시대를 넘어서도 추구할 가치가 있는 학문으로서의 고전민속학을 정립하여 민속과 문화의 학문인 민속문화학이 확산적으로 지향되기를 제시하였다.

투고일 2012. 3. 20.

수정일 2012. 5. 4.

개재 확정일 2012. 5. 17.

주제어(keyword) 민속학(folklore), 민(folk), 민속문화학(folklore–culture study), 학제간적 복합성(interdisciplinary complexity), 고전민속학(classical studies of folklore)

